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혜정¹⁾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1패널 대상 아동 2,166명의 1차-3차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합동, 집단 간, 고정효과, 임의효과 등과 같은 네 가지 추정량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추정 방법에 따라 영향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방과후 돌봄공백은 학습활동적응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학습활동적응에 대한 다른 영향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모형에서도 방과후 돌봄공백의 부적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대해 방과후 돌봄공백이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 고정효과에서는 통제변수들에 의해 방과후 돌봄공백의 부적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사라졌다. 이를 통해 각 아동의 저학년 시기 동안의 방과후 돌봄공백 상황 변화보다는 방과후 돌봄공백 자체가 아동의 학습활동적응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정책은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교육적으로 잘 설계된 돌봄서비스로 보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과후 돌봄공백, 학교 학습활동적응, 패널 분석

I. 서론

여성의 경제활동과 핵가족 비율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의 사회 구조적 변화에 맞추어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책임은 오로

* 본 논문은 저자의 201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1) 고양시 서정중학교 수학교사

지 핵가족화된 각 가정에 전가되어 왔다. 그런데 자녀 돌봄 문제를 개별 가정 내에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는 한국사회에서 돌봄공백 문제로 표출될 개연성이 크다. 특히 돌봄공백 문제는 보육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기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더 심각해진다(오아림·유계숙, 2012). 이를 반영하듯 방과후 자녀를 맡길 기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64.1%나 된다(서문희·김유경, 2006). 또한, 워킹맘의 41.4%는 이 시기를 자녀 돌봄 문제가 가장 큰 힘든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다(예지은·진현·조현국 외, 2010). 그런데도 여전히 학령기 아동을 위한 지원책은 미미한 실정이다(노성향·조선하·박지희, 2007). 즉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아동들은 체계적 돌봄서비스 망에서 배제되는 ‘돌봄절벽’ 상황에 놓이게 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초등학교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전체 초등학교생의 약 37%가 방과후 성인 보호자 없이 시간을 보내는 돌봄공백 상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장혜경·황경임·최인희 외, 2015). 그리고 성인 보호자로부터의 적절한 돌봄 없이 홀로 있게 되는 돌봄공백 상황은 아동들의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비행 가능성 등을 포함한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아동이 홀로 있게 되는 상황이 아동의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으므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Hedlin, Hannes, Saito et al, 1986). 그러나 성인 보호자의 관리, 감독 없이 아동 홀로 있는 상황에서 아동들은 적절한 교육적 개입 없이 컴퓨터 게임이나 TV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김선미, 2005).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발달 단계 상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교육적 기회의 향유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시기이다(Gootman & Smolensky, 2003). 따라서 방과후 돌봄공백은 초등학교생의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동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경험한 돌봄공백은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성취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김성식, 2012; 이봉주·조미라, 2011; Pettit, Laird, Bates et al., 1997). 김성식(2012)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이봉주·조미라(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방과후 방치가 중학교 시기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방과후 방치 정도가 심할수록 부적 효과의 크기는 더 커졌다. 그리고 Pettit, Laird, Bates et al.(199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전 학교적응 정도를 통제한 후에도 1, 3, 5학년 시기의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는 6학년 시기의 학교 적

응 및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은 남자 초등학생의 자기학습 통제 능력을 감소시켰다(이준호·박현정, 2012). 이렇게 방과후 돌봄공백은 초등학생의 낮은 학교적응 수준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부모의 감독 수준이 낮으면 부적응 정도는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김은지·전귀연, 2014). 또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방과후 돌봄공백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Lord & Mahoney, 2007).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낮은 학업성취도를 유발한 방과후 돌봄공백은 아동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서의 어려움을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

한편 이러한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가 사회정책 차원에서 해결되는 정도가 작아진다면 가정배경에 의한 자녀 돌봄 여건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Kremer, 2002). 특히 가정배경으로 인한 교육투자의 양적, 질적 차이는 방과후에 더 크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교육격차가 확대된다(Rothstein, 2004).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을 받는 아동과 돌봄공백 상황에 처한 아동은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개연성이 매우 크다. 이런 측면에서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 해결은 가정배경으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초등학생 아동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교육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방과후 돌봄공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방과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이봉주·조미라, 2011). 또한, 방과후 돌봄공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몇몇 연구 결과도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예컨대 서혜전(2012)은 방과후 돌봄공백이 아동의 공격성, 위축, 우울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독서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직·간접효과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이봉주·조미라(2011)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중학교 시기 성취도 및 내면화·외현화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는 3년마다 측정된 자료라는 한계점이 있어 매년 측정된 자료를 이용할 필요도 있다.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발달 단계상 심리적 부적응이나 위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며(최정미·오선영, 2004), 기억력, 주의집중력 등에서도 급격한 발달을 보이는 시기(황옥경, 2009)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발생한 발달 단계상의 결손은 누적된 형태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의 형태나 활동 경험은 이후 발달과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Posner & Vandell, 1994).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매년 측정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걸쳐 매년 조사된 종단자료를 이용해 방과후 돌봄공백이 초등학교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교육적 결과 중에서도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주목하는 이유는 학령기 아동에게 학교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일 뿐 아니라 아동의 성장 발달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활동적응은 학교생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학습 장면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모들이 교육적 지원을 할 때 집중하는 부분이다. 특히 유치원과 달리 보육에서 교육으로 그 중심축이 변하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수행 적응에 대해 가장 큰 염려를 표명하고 있다(김창복·이신영, 2013).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개별 가정에 전가된 현실에서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양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방과후 돌봄공백이 초등학교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시도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효과적인 방과후 돌봄정책 설계 및 교육적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의 초1 패널 1차-3차 자료와 초등학교가 속한 88개 시군구에 해당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자료²⁾ 및 공공도서관 자료³⁾를 통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2)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자료(이채정, 2016)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시군구별로

년 패널 조사의 초1 패널은 2010년 기준 88개 시군구, 98개 초등학교 소속 1학년이었던 2,342명의 아동이 선정되었다. 이후 해당 아동들을 6학년 시기까지 매 학년 진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패널자료이다. 최종 분석에는 종속변수인 학교 학습활동적응에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사례들을 모두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2,342명 중 88개 시군구, 98개 초등학교에 속한 초등학교 학생 2,166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2. 변수 설정 및 결측치 처리

종속변수는 학교 학습활동적응 정도이다. 학교 학습활동적응은 학교 수업 상황에서 학생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수업에 대한 흥미, 이해, 과제수행, 인지 정도 등을 측정하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⁴⁾

그리고 독립변수는 크게 학생 개인 변수, 가정배경 변수, 학교 변수, 지역사회 변수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투입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각각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변수로는 방과후 돌봄공백, 학생 성별, 순위 또는 손아래 형제·자매가 있는지와 방과후 사교육 시간, 컴퓨터 및 TV와 같은 전자매체 시간, 놀이 시간, 공부 시간, 학교과제 시간, 독서 시간과 같은 방과후 시간 활용 양상을 보여주는 변수들과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와 같은 변수를 설정하였다. 가정배경 변수로는 가구소득, 맞벌이 가정 여부, 부모학력, 거주지가 읍면지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학교 관련 변수로는 교사와의 관계 및 학교 친구와의 관계와 방과후학교 교과관련수업 참여 여부 및 방과후학교 예체능수업 참여 여부를 고려하였다. 지역사회 관련 변수로는 초등학교생이 방과후에 활용 가능한 지역의 사회적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복지기관의 방과후 교과관련수업 참여 여부 및 방과후 예체능수업 참여 여부를 투입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표본

2015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분석된 자료로 다른 대체 가능한 자료가 없다는 한계점으로 인해 시점상의 문제점이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 3)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매년 조사된 시군구별 도서관 자료이다.
- 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학교 학습활동적응을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를 포함하여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문항은 신뢰도 값을 상당히 낮추는 문항으로 이 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성식, 2012; 최효식·연은모·김남희, 2013). 결과적으로 5개 문항 중 한 문항이 제외되어 총 4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탈을 포함한 불성실한 응답 등 다양한 이유로 결측치(missing data)가 있다. 결측치를 대체하여 전체 표본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정보 이용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다(Carlin, Galati & Royston,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결측 자료에 대한 임의성을 전제로 하는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사용하였다. 다중대체법을 실시할 때 종속변수가 결측인 사례를 포함해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한 후 종속변수가 결측인 사례를 제외하였다. 이렇게 총 20회 다중대체를 실시하여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모든 자료값이 존재하는 온전한 20개의 데이터 세트를 얻었다.

다중대체된 20개 데이터 세트에서 산출한 기초통계량을 전술한 설정 변수들에 대한 측정문항 및 척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

변수	변수 설명	평균(s.d) 또는 %	결측 대체율
학교학습 활동적응	1)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2)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3)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4)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단, 1), 2), 3)번 문항은 역코딩) α: 1차-0.581, 2차-0.568, 3차-0.654	3.237(0.191)	0%
방과후돌봄 공백정도 ⁵⁾	돌봄공백 아님=0 (주당 방과후 돌봄공백 시간=0) 돌봄공백 낮은 정도=1 (0<주당 방과후 돌봄공백 시간<3) 돌봄공백 중간 정도=2 (3≤주당 방과후 돌봄공백 시간<9) 돌봄공백 높은 정도=3 (주당 방과후 돌봄공백 시간>9)	69.69% 10.32% 7.06% 12.93%	0.88%
성별	여학생=1 남학생=0	48.52% 51.48%	0%
방과후 놀이 공부 시간	사교육 방과후 학원 및 과외 시간	1.877(1.091)	3.15%
	전자매체 컴퓨터나 TV 및 비디오 이용 시간	2.208(1.202)	2.45%
	놀이 다양한 형태의 놀이 시간	0.941(0.800)	1.80%
	공부 사교육, 학교과제, 독서 등을 제외한 여러 가지 형태 공부 시간	0.498(0.481)	2.48%
	학교과제 학교에서 부여한 과제 수행 시간	0.600(0.380)	2.15%
독서	스스로 책을 읽는 시간	0.645(0.510)	1.71%
맞벌이여부	부와 모 모두 근로 상태인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49.12% 50.88%	1.68%
가구소득	연평균 가구소득에 1을 더한 후 자연로그를 취한 값	8.240(0.712)	4.37%

변수	변수 설명	평균(s.d) 또는 %	결측 대체율
부모학력	(부모 각각의 최종 학력 중 최댓값을 부모학력으로 설정) 중졸 이하와 고졸인 경우를 고졸 이하=1 전문대졸=2 4년제 대졸과 대학원졸을 4년제 대졸 이상=3	32.94% 21.19% 45.87%	1.02%
형제구조 ⁶⁾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인 경우=0 손아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1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2	12.28% 36.10% 51.62%	0%
읍면지역	읍면지역인 경우=1 (19.17%), 거주지가 도시 지역인 경우=0 (80.83%)	19.11% 80.89%	0%
교우관계	1)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2)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3)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4)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5)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단, 1), 2), 3), 4)번 문항은 역코딩) α: 1차-0.603, 2차-0.532, 3차-0.571	3.187(0.487)	0%
교사관계	1)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2)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3)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4)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5)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단, 1), 2), 3), 4), 5)번 문항 역코딩) α: 1차-0.737, 2차-0.762, 3차-0.788	3.512(0.505)	0.02%
방과후학교 교과관련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논술, 한자 등 방과후학교 수업참여	22.19%	0%
방과후학교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기타 등 방과후학교 수업참여	23.16%	0%
복지기관 교과관련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논술, 한자 등 지역복지기관 방과후 프로그램 중 참여	3.46%	0%
복지기관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기타 등 지역복지기관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3.11%	0%
도서관아동수	시군구별 지역 소재 도서관에 등록된 아동 수 (단위: 만명)	0.543(0.434)	0%
방과후서비스 충분성	지역의 방과후 서비스가 수요 대비 공급 정도가 적정한지 ① 매우 부족한 경우 ② 조금 부족한 경우 ③ 적절한 경우 ④ 조금 초과한 경우 ⑤ 많이 초과한 경우	2.693(0.842)	0%

주: 제시하는 기초통계량은 다중대체법에 의해 결측치가 대체된 20개 데이터 세트에서 얻은 값임

3. 분석방법 및 결측치 처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 시기에 겪은 방과후 돌봄공백이 이 시기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표집된 모든 학생에 대해 학년별로 반복 조사해 수집한 패널 자료다. 한편 민인식·최필선(2012)은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첫째, 정적인 관계만 추정할 수 있는 횡단면 데이터보다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동적인 관계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개체들의 비관측 이질성 요인을 고려한 모형 설정이 가능하므로 모형설정의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패널 데이터에는 횡단면 자료보다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어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패널 자료를 이용한 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_{it} = \alpha + X_{it}\beta + Z_i\gamma + u_{it} \quad (u_{it} = \mu_i + v_{it})$$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166명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시기의 자료이므로 위 식에서 $1 \leq i \leq 2166$ 이고, $1 \leq t \leq 3$ 이다. 그리고 y_{it} 는 학생 i 의 시점 t 에서의 종속변수값, u_{it} 는 오차항을 가리킨다. 또 X_{it}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독립변수들의 벡터이고, Z_i 는 시간 불변 독립변수들의 벡터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 중 X_{it} 에는 방과후 전자매체 시간, 공부 시간, 학교과제 시간, 독서 시간, 사교육 시간, 놀이 시간, 돌봄공백 정도, 가구소득, 맞벌이가정 여부, 교사관계, 교우관계, 방과후학교 교과관련 수업 참여 여부, 방과후학교 예체능수업 참여 여부, 복지기관 방과후 교과관련수업 참여 여부, 복지기관 방과후 예체능수업 참여 여부, 지역소재 도서관 어린이 등록자 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Z_i 에는 학생 성별, 순위 또는 손아래 형제·자매 유무, 부모학력, 거주지가 읍면지역인지 여부, 지역의 방과후서비스 충분성 등이 포함되었다.

-
- 5)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는 조사 대상 자녀가 방과후에 성인 보호자 없이 형제가 자매끼리만 있는 시간을 일주일 중 '1=거의 없다, 2=1-2일 정도, 3=3-4일 정도, 4=거의 매일'로, 하루 평균 '1=1시간 미만, 2=1-2시간 정도, 3=3-4시간 정도, 4=4시간 이상'으로 보호자의 보고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해 주중 일 수는 '1=0, 2=1.5, 3=3.5, 4=7'로, 하루 평균 시간은 '1=0.5, 2=1.5, 3=3.5, 4=7'로 환산한 후 일 수*하루 평균 시간을 주당 방과후 돌봄공백 시간으로 사용하였다.
- 6) 순위 형제·자매와 손아래 형제·자매가 다 있는 경우 순위 형제·자매가 있는 집단에 포함

한편 오차항의 구조를 살펴보면 오차항 u_{it} 는 시간 불변 비관측 요인으로 각 학생에 대한 개별효과(individual effects)를 의미하는 μ_i 와 임의적인 요인인 고유오차(idiosyncratic errors)로 불리는 v_{it} 로 구성되고, 이를 오차성분(error components)모형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오차항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계수 추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동, 임의효과, 고정효과, 집단간 효과 각각에 대한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한 추정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오차항에 대한 가정과 모형을 각 추정량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추정 모형 및 오차항에 대한 가정

추정방법	모형 및 오차항 가정
합동	$y_{it} = \alpha + X_{it}\beta + Z_i\gamma + u_{it}$ 모든 i, t 에 대해 $cov(I_{it}, u_{it}) = 0, E(u_{it}) = 0, var(u_{it}) = \sigma^2$, 서로 다른 i, j 와 t, s 에 대해 $cov(u_{it}, u_{js}) = 0$
임의효과	$y_{it} - \theta \bar{y}_i = \alpha(1 - \theta) + (X_{it} - \theta \bar{X}_i)\beta + (Z_i - \theta Z_i)\gamma + (u_{it} - \theta \bar{u}_i)$ 모든 i, t 에 대해 $cov(I_{it}, u_{it}) = 0, E(\mu_i) = 0, E(v_{it}) = 0, var(\mu_i) = \sigma_\mu^2$, $var(v_{it}) = \sigma_v^2, cov(\mu_i, v_{it}) = 0$
고정효과	$y_{it} - \bar{y}_i = (X_{it} - \bar{X}_i)\beta + (v_{it} - \bar{v}_i), cov(I_{it}, \mu_i) \neq 0$ $\bar{y}_i = \alpha + \bar{X}_i\beta + Z_i\gamma + \mu_i + \bar{v}_i$
집단간효과	모든 i, t 에 대해 $cov(I_{it}, \mu_i) = 0, E(\mu_i) = 0, E(v_{it}) = 0, var(\mu_i) = \sigma_\mu^2$, $var(v_{it}) = \sigma_v^2, cov(\mu_i, v_{it}) = 0$, 서로 다른 t, s 에 대해 $cov(v_{it}, v_{is}) = 0$

주1: I_{it} 는 시간 불변 및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벡터

주2: i, j 는 2,166명의 학생 중 서로 다른 학생, t, s 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3년 중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킴

진술한 분석방법에 따라 다중대체법에 의해 얻어진 20개의 온전한 자료를 이용해 통합추정치 산출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에는 STATA 13.0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인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년 동안 방과후 돌봄공백이 초등학교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단분석을

이용해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다중대체를 이용해 결측대체한 온전한 20개의 자료를 이용해 합동, 임의효과, 고정효과, 집단간 효과를 추정하였고, 그 결과를 이용해 산출한 통합 추정치를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POLS		Random effect		Fixed effect		Between effect		
	I	II	I	II	I	II	I	II	
	계수 (robust s.e)	계수 (robust s.e)	계수 (robust s.e)	계수 (robust s.e)	계수 (robust s.e)	계수 (robust s.e)	계수 (s.e)	계수 (s.e)	
방과후 돌봄 공백 정도	낮은정도	-0.085*** (0.022)	-0.030* (0.015)	-0.072*** (0.021)	-0.026* (0.016)	-0.046* (0.025)	-0.007 (0.021)	-0.098* (0.039)	-0.037 (0.027)
	중간정도	-0.120*** (0.030)	-0.051* (0.022)	-0.082** (0.028)	-0.036* (0.022)	-0.024 (0.033)	0.013 (0.028)	-0.210*** (0.048)	-0.110** (0.034)
	높은정도	-0.118*** (0.021)	-0.041* (0.017)	-0.094*** (0.019)	-0.036* (0.016)	-0.044* (0.025)	-0.004 (0.020)	-0.149*** (0.031)	-0.045* (0.023)
성별 (여학생=1)		0.058*** (0.013)		0.067*** (0.013)		-		0.030** (0.011)	
학년	2학년		-0.104*** (0.014)		-0.109*** (0.014)		-0.127*** (0.014)		-
	3학년		-0.180*** (0.014)		-0.186*** (0.014)		-0.206*** (0.015)		-
방과후 사교육시간		0.010 (0.006)		0.009 (0.006)		0.002 (0.008)		0.011 (0.007)	
방과후 전자매체시간		-0.012* (0.005)		-0.011* (0.005)		0.001 (0.008)		-0.013* (0.006)	
방과후 놀이시간		-0.015* (0.007)		-0.011 (0.007)		0.005 (0.009)		-0.030** (0.009)	
방과후 공부시간		0.028** (0.010)		0.023* (0.010)		-0.002 (0.013)		0.043** (0.016)	
방과후학교 과제시간		-0.006 (0.017)		-0.005 (0.016)		0.004 (0.019)		-0.015 (0.021)	
방과후 독서시간		0.040*** (0.011)		0.037*** (0.010)		0.017 (0.013)		0.047** (0.014)	
맞벌이여부		-0.016 (0.012)		-0.014 (0.011)		0.009 (0.018)		-0.016 (0.014)	

	POLS		Random effect		Fixed effect		Between effect	
	I	II	I	II	I	II	I	II
	계수 (robust s.e)	계수 (robust s.e)	계수 (robust s.e)	계수 (robust s.e)	계수 (robust s.e)	계수 (robust s.e)	계수 (s.e)	계수 (s.e)
가구소득 (연평균)		0.013 (0.008)		0.010 (0.008)		-0.022 (0.016)		0.017† (0.010)
부모 학력	전문대졸			0.013 (0.016)				0.016 (0.015)
	4년제			0.030* (0.015)				0.035* (0.014)
	이상							- (0.018)
형제 구조	손아래			0.003 (0.017)				0.003 (0.017)
	있음							- (0.009)
	손위			0.004 (0.017)				0.002 (0.017)
읍면지역		-0.004 (0.022)		-0.004 (0.023)				- (0.015)
교우관계		0.386*** (0.013)		0.364*** (0.013)		0.287*** (0.016)		0.463*** (0.018)
교사관계		0.283*** (0.014)		0.271*** (0.015)		0.222*** (0.019)		0.322*** (0.018)
방과후학교 교과관련수업		-0.012 (0.011)		-0.009 (0.012)		-0.001 (0.015)		-0.023 (0.018)
방과후학교 예체능수업		0.012 (0.012)		0.010 (0.011)		0.003 (0.013)		0.025 (0.019)
복지기관 교과관련수업		-0.030 (0.026)		-0.014 (0.025)		0.052 (0.037)		-0.077† (0.042)
복지기관 예체능수업		-0.012 (0.024)		-0.016 (0.023)		-0.023 (0.033)		0.011 (0.048)
도서관 등록 아동 수		0.010 (0.016)		0.015 (0.016)		0.065** (0.023)		0.003 (0.014)
방과후서비스 충분성		0.001 (0.008)		0.001 (0.009)				0.001 (0.007)
상수	3.270** (0.013)	0.954*** (0.099)	3.263*** (0.013)	1.083*** (0.096)	3.249*** (0.006)	1.770*** (0.136)	3.282** (0.010)	0.476*** (0.100)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POLS, Random effect, Fixed effect의 ro s.e는 각 학교를 클러스터로 설정한 강건한 표준오차

먼저 합동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방과후 돌봄공백은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가 낮을 때($b=-0.085$)보다도 중간 정도($b=-0.120$)나 높은 정도($b=-0.118$)였을 때 부정적 영향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모두 투입하여 통제한 모형에서도 방과후 돌봄공백의 부정적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미하며 영향력의 크기만 작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가 낮은 정도의 영향력은 $b = -0.085$ 에서 $b = -0.030$ 로, 중간 정도의 영향력은 $b = -0.120$ 에서 $b = -0.051$ 로, 높은 정도의 영향력은 $b = -0.118$ 에서 $b = -0.041$ 로 부적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이는 방과후 돌봄공백의 부적효과 중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 각 수준별로 64.9% ($(1 - \frac{-0.030}{-0.085}) \times 100\%$), 57.9% ($(1 - \frac{-0.051}{-0.120}) \times 100\%$), 65.7% ($(1 - \frac{-0.041}{-0.118}) \times 100\%$)가 두 번째 모형에서 추가로 투입한 통제변수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모형에서 투입한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생 성별, 학년, 방과후 시간 활용 성격, 부모학력,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을 더 잘할 것으로 예측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방과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세분화하여 변수로 투입하였는데 그 결과 공부시간, 독서 시간은 정적 효과를, 전자매체 시간, 놀이 시간은 유의미한 부적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방과 후에 사교육 시간, 학교과제를 하는 시간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다. 맞벌이 여부나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는 가운데 부모학력은 고졸 이하 학력에 비해 4년제 이상 학력인 경우에만 자녀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동인지 순위 또는 손아래 형제자매가 있는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방과후학교나 복지기관의 교과 및 예체능 수업과 지역 도서관 등록 아동 수, 지역의 방과후 서비스 충분성과 같은 제반 여건도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학교 내에서의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으로 나타나는 교우관계,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임의효과 추정 결과에서도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는 모든 수준에서 돌봄공백이 없는 학생에 비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가 심각할수록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대한 부적 영향력의 크기는 커졌다. 그리고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대한 다른 영향요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도 방

방과후 돌봄공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은 돌봄공백의 모든 수준에서 여전히 유의미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가 낮은 정도의 영향력은 $b = -0.072$ 에서 $b = -0.026$ 으로, 중간 정도의 영향력은 $b = -0.082$ 에서 $b = -0.036$ 으로, 높은 정도의 영향력은 $b = -0.094$ 에서 $b = -0.036$ 으로 부적 영향력의 절대값이 작아지고 있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의 부적효과 중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 각 수준별로 64.0% ($(1 - \frac{-0.026}{-0.072}) \times 100\%$), 55.6% ($(1 - \frac{-0.036}{-0.082}) \times 100\%$), 61.7% ($(1 - \frac{-0.036}{-0.094}) \times 100\%$)가 개인특성, 방과후 시간, 가정배경, 학교관련, 지역사회 변수 등과 같은 통제변수로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성별, 학년, 전자매체 시간, 공부 시간, 독서 시간과 같은 방과후 시간 활용, 부모학력, 교우관계, 교사관계도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더 유리할 수 있으며, 학년이 진급할수록 학생들의 학교 학습활동적응 수준은 더 낮을 수 있다. 방과후 공부 시간, 독서 시간은 유의미한 정적효과를, 전자매체 시간은 부적효과를 보인다. 맞벌이 가정, 가구소득, 형제 구조, 읍면 지역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인 경우에 고졸 이하 학력에 비해 자녀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및 복지기관의 수업 수강과 방과후서비스 충분성과 같은 방과후 제반 여건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초등학생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로 확인된다.

셋째, 각 학생별로 학생의 저학년 시기 학년 진급에 따른 변화에 주목한 집단내 효과인 고정효과 추정 결과를 확인해 보면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가 낮을 때($b = -0.046$)와 높은 정도일 때($b = -0.044$) 유의미한 부적 효과가 확인된다. 그러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방과후 돌봄공백 자체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있다. 한편 고정효과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는 학년별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서 각 학생이 저학년 시기 평균적으로 방과후 돌봄공백에 처한 정도를 차감한 값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는 방과후 돌봄공백 상황에 처한 학생은 돌봄공백 상태 자체에 적응하여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자신만의 적응 방식이 있어 추가적인 돌봄공백 수준의 심화가 반드시 부가적인 부적효과 초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다른 통제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해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 도서관 등록 아동 수는 정적 효과를 보인다. 교사관계나 교우관계가 좋았던 학생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3년을 보내면서 관계가 더 좋아진다면 이로 인해 학교 학습활동적응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방과후 사교육 시간, 전자매체 시간, 놀이 시간, 공부 시간, 학교과제 시간, 독서 시간 등 방과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다. 또 방과후학교 및 복지기관에서의 방과후 수업이나 방과후 서비스 충분성과 같은 방과 후 여건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지만 도서관 등록 아동 수는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기존 도서관 등록 아동 수에서의 시간에 따른 증가 정도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이는 최근 지역 도서관을 중심으로 근접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을 위해 노력하는 도서관 문화 중심 평생교육 확대 방침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학생별 저학년 시기 전 기간에 걸친 평균값에 대한 집단간 효과 추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방과후 돌봄공백의 영향력을 수준별로 살펴보면 돌봄공백 정도가 낮은 정도일 때는 $b=-0.098$, 중간 정도일 때는 -0.210 , 높은 정도일 때는 -0.149 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대한 유의미한 부적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적 효과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일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가 낮은 경우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지만, 중간정도일 때는 -0.110 , 높은 정도일 때는 -0.045 로 부적효과의 크기는 줄어들었고 통계적 유의미성은 지속되었다. 이리하여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요인들은 방과후 돌봄공백이 중간 정도의 $47.8\%((1 - \frac{-0.110}{-0.210}) \times 100\%)$, 높은 정도의 $69.9\%((1 - \frac{-0.045}{-0.149}) \times 100\%)$ 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별, 방과후 전자매체 시간, 놀이 시간, 공부 시간, 독서 시간과 같은 방과후 시간활용 특성과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와 가구소득은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을 더 잘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방과후 공부 시간, 독서 시간은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유리한 반면, 전자매체이용 시간, 놀이 시간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가구소득은 자녀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부모의 맞벌이나 학력과 같은 가정배경을 비롯해 순위 또는 손아래 형제자매가 있는지 여부 및 거주지가 읍면 지역인지 여부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교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는 각 학생들의 3년 동안의 평균값을 고려한 집단간 추정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추정치들을 비교해 보면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한 네 가지 추정 방법에 따라 영향력의 크기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특정 시기 동안의 방과후 돌봄공백의 부정적 영향력(김성식, 2012; Pettit, Laird, Bates et al., 1997)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동안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크기를 추정 방법에 따라 비교해보면 집단간 효과 추정 계수가 합동, 임의 효과, 고정 효과 계수보다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별 저학년 시기 동안의 평균적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가 저학년 시기의 평균적인 학교 학습활동적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집단간 효과가 다른 효과 크기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결과이다.

또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른 집단간 효과의 계수 크기를 확인해 보면 방과후 돌봄공백이 중간 정도일 때의 부정 영향이 높은 정도일 때보다도 오히려 더 높다. 이 결과는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가 심해질수록 영향력의 부정 크기가 커지는 통합 및 임의 효과 추정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한편 집단간 효과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학생별 3년 동안의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따라서 3년 동안의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가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인 집단은 낮은 정도나 높은 정도 집단에 비해 다소 이질적인 특성의 사례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가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인 집단에는 지속적으로 중간 정도였던 사례, 3년 중 어떤 학년은 낮은 정도이거나 아님이었다가 높은 정도로 변화된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즉 이질적 특성을 가진 사례들로 인해 돌봄공백이 중간 정도인 경우 집단간 효과에서 높은 정도의 경우보다도 더 강한 부정 영향력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을 개연성이 있다.

한편 방과후 돌봄공백의 부정적 영향력이 확인된 합동, 임의 효과, 집단간 효과 추정치들과 달리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대한 방과후 돌봄공백의 영향력이 중간 정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대한 모든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는 모든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의 증·감보다는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 자체가 학교 학습활동적응 정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예컨대 어떤 학생이 방과후 돌봄공백 상태가 평균적으로 높은 정도였다면 3년 동안 돌봄공백이 아니거나 낮은 정도 또는 중간 정도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는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대한 모든 영향요인들을 투입한 모형에서도 고정효과 추정 결과는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방과후 특성별 시간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대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방과후 시간의 경우 저학년 시기 3년 동안의 각 개인 내에서 일어나는 집단 내 변화량은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요인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방과후 시간 활용의 값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학생 각 개인별로 저학년 시기 3년 동안의 개인적인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학생이 학년 진급에 따라 달라진 값에 의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방과후에 사교육, 전자매체, 놀이, 공부, 학교 과제, 독서 시간 등은 3년 동안의 평균적 시간 자체가 학년 변화에 따른 평균으로부터의 변화량보다도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더 주요한 영향력으로 나타났을 개연성이 크다.

IV. 논의 및 결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패널분석을 이용해 합동, 고정효과, 임의효과, 집단간 효과 등 총 네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였고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네 가지 모든 추정 결과에서 효과의 크기 차이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런 부정적효과는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모두 투입해 통제된 모형에서도 유의미하게 유지되었다. 단 이 모형에 대한 방과후 돌봄공백의 고정효과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방과후 돌봄공백이 다른 모든 영향요인들을 통제된 후에도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방과후 돌봄공백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정효과에서 방과후 돌봄공백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은 단순히 방과후 돌봄공백의 부정적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방과후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학생의 경우 그 상황에서의 돌봄상태가 변화되는 정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방과후 돌봄공백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스스로 그 상황에 대처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되어 나름의 대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아동이 방과후에 홀로 있는 상황이 위험한 환경임에도 학생 스스로 그 상황에 적응기제를 찾고 있어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두고 방과후 돌봄공백의 부적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녀가 학교 학습활동에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적 결과를 이루기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바람이다. 이는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주의는 자녀의 교육적 결과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부모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장경섭, 2009). 이런 모습은 어머니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성의 핵심이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는 책임을 완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나윤경·태희원·장인자, 2007).

이에 고학력, 고소득 가정에서 오히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지 않고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의 모든 가용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김대일, 2008). 이렇게 자녀의 성공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이민경, 2007) 한국사회에서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는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어머니로 매도될 여지가 크다. 만약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가정으로 환원되며, 특히 가정 내 어머니에게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충분히 예견되는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는 자녀의 교육적 결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어머니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학령기 초기로 학교생활의 중요한 첫 걸음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학교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과제 이행과 같은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은 이후 학년이 진급하면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Ladd & Troop-Gordon, 2003). 즉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학생들의 학교 학습활동적응은 이후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함께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지원한다(지성애·정대

현, 2006).

특히 출산기피의 주요한 요인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으로 확인되는 국내 현실(이삼식·박종서·이소영 외, 2016)과 한국 사회의 교육열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방과후 돌봄공백으로 인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모들은 자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한 자녀 또는 무자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맞닿아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방과후 돌봄공백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상황 속에서도 돌봄공백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면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저출산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 정부의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로 구성되는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논의하였다. 이는 국내 돌봄정책의 서로 다른 주무부처 간 협력 부재로 인한 서비스 대상자 중복, 사각지대 발생, 비효율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공동추진단이라는 형식적인 조직 생성만으로는 실질적인 현실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같은 정책이 각 가정의 아동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돌봄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영유아기의 체계적 돌봄서비스 망이 연계되지 못하는 초등학교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정책 연계성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방과후 돌봄공백의 부적 영향력은 저학년 시기 동안 개별 학생들의 학년 변화에 따른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의 변화보다는 방과후 돌봄공백의 크기 자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정책은 교육적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학년 시기 방과후 돌봄공백 상태가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대다수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적 결과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때 방과후 전자매체시간, 놀이시간은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공부시간, 독서시간은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시간이 좀 더 교육적으로 잘 설계된 돌봄서비스를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돌봄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가 심각할수록 초등학생의 방과후 시간 활용은 공부나 독서보다는 전자매체나 놀

이 등 비교육적인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이다(임혜정, 2017). 따라서 그런데 놀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학습활동적응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놀이는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정수경, 2011). 이런 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정책을 계획할 때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안되어야 한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는 맞벌이, 가구소득, 부모학력과 같은 구조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임혜정, 2017).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용 자원이 부족해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가 심각한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의 경우, 돌봄공백 상황이 다소 완화되더라도 교육적 결과가 개선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초등학생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방과후 돌봄공백을 원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 돌봄의 문제가 개별 가정의 자원만로는 역부족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보내고 있다. 개별 가정의 한정된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공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모든 귀속적 영향요인과 독립적으로 모든 가정의 자녀가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회가 답해야 한다. 지금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한 시대에서 더 나아가 사회 전체, 국가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대일(2008).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교육. 노동경제논집, 31(2), 73-102.
- 김선미(2005).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을 통해 본 아동양육지원의 정책적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05-116.
- 김성식(2012). 학생 배경과 방과후 활동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도 차이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3), 27-47.
- 김은지·전귀연(2014).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모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2), 171-193.
- 김창복·이신영(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린이 미디어연구, 12(3), 319-350.

- 나윤경·태희원·장인자(2007). 자녀 사교육을 통한 모성 구성과정-평생학습자로서의 성인 여성에 대한 이해의 한 방식. 평생교육학연구, 13(4), 55-87.
- 노성향·조선하·박지희(2007).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민인식·최필선(2012).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 서문희·김유경(2006).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연구. 경기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혜전(2012). 방과후 방치와 아동의 공격성, 위축, 우울과의 관계에서 독서의 매개효과.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0(3), 25-41.
- 예지은·진현·조현국·백성욱·이민훈·박준·강우란·이병하(2010). 워킹맘의 실태와 기업의 대응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오아림·유계숙(2012). 초등학교 자녀를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키는 취업모의 동기와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 미래유아교육, 19(2), 227-244.
- 이민경(2007). 중산층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담론-자녀교육 지원태도에 대한 의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3), 159-181.
- 이봉주·조미라(2011).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단일호), 7-33.
- 이삼식·박중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민영(2016).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준호·박현정(2012). 맞벌이의 교육적 기회비용. 아시아교육연구, 13(3), 27-59.
- 이채정(2016). 아동복지사업 평가-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 임혜정(2017).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경섭(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장혜경·황경임·최인희·김영란·주재선·김소영·오현경·김수지(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수경(2011). 놀이중심의 자기표현훈련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표불안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학연구, 17(2), 155-176.
- 지성애·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최정미·오선영(2004).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생활실태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6(2), 85-97.

- 최효식·연은모·김남희(2013). 취학 월령이 학교생활 적응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8(2), 133-154.
- 황옥경(2009). 사회 속의 아동: 영국의 아동 관련법과 정책에 나타난 변화와 도전. 서울: 창지사.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Carlin, J. B., Galati, J. C., & Royston, P. (2008). A new framework for managing and analyzing multiply imputed data in Stata. *Stata Journal*, 8(1), 49-67.
- Gootman, J., & Smolensky, E. (2003). *Work and family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child and youth develop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Hedlin, D., Hannes, K., Saito, R., Goldman, A., & Knich, D. (1986). *Summary of the family's view of after school time*.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Research.
- Kremer, M. (2002). The Illusion of Free Choice: Ideals of Care and Child Care Policy in the Flemish and Dutch Welfare States. pp. 113-142 in S. Michel and R. Mahon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New York: Routledge.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Lord, H., & Mahoney, J. L. (2007). Neighborhood crime and self-care: Risks for aggression and lower academic perform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321.
- Pettit, G. S., Laird, R. D., Bates, J. E., & Dodge, K. A. (1997). Patterns of after-school care in middle childhood: Risk factors and developmental outcomes. *Merrill-Palmer Quarterly*, 43(3), 515-538.
- Posner, J. K., & Vandell, D. L. (1994). Low Income Children's After 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 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2), 440-456.
- Rothstein, R. (2004). *Class and Schools*. Washington, D.C: Economic Policy Institute.

·논문접수 11월 7일 / 수정본 접수 11월 30일 / 게재 승인 12월 12일

·교신저자: 임혜정, 고양시 서정중학교 수학교사, 이메일 nanapro88@naver.com

Abstract

The Effects of After-school Self-care by Lower Elementary Students on Children's Adaptation in Learning

Hye Jung L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after-school self-care on the adaptation of low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to learning. For this purpose, I used the first to third data of the elementary first graders' panel of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Using the panel data of 2,166 children, four estimators such as pols, between effect,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were calcul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lthough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varied according to the estimation method, the after-school care gap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adaptation to learning. Furthermore, even in the model that controlled all other influential factors for adaptation of learning, negative influence of after-school care gap was significant. This suggests that after-school care gaps can be a serious risky factor for school-aged children's adaptation in school learning. In the fixed effect,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negative influence of after-school self-care on adaption in learning was lost by the control variables. It was found that after-school care gap could have a greater influence on children's adaptation to learning than the change in after-school care gap during the lower grades of each child.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after-school care policies for lower elementary students should be strengthened in consideration of seasonal characteristics and should be complemented by well-designed care services considering the educational context.

Key words: lower elementary students, after-school self-care, children's adaptation in learning, panel analysis